

광주일보



전남 체육발전위해...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박내영)는 지난 20일 도체육회 회의실에서 53개 가맹 경기단체 전무이사 회의를 열고 제94회 인천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과 전남도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 체육회 제공>

남도일보

전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회의

박내영 사무처장 상견례 및 체육발전 의견수렴

전남도체육회(회장 박준영)는 20일 신임 박내영 사무처장 주재로 53개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전무이사회의는 지난 7월 30일자로 부임한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상견례를 겸해 제94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차질없는 참가 준비 및 경기력향상과 전남체육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남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선수 지원 확대, 행정기관직장팀장단 및 운영지원, 도내기업체의 체육참여 방안,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현안사업의 해결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감공무원으로써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전남도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체육인들과 상생하면서 전남체육진흥과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전남일보



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회의

전남도체육회는 20일 전남체육회관에서 박내영 사무처장과 53개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제94회 전국체전 참가 준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남일보

전남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회의

전남도체육회는 20일 신임 박내영 사무처장 주재로 53개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날 30일자로 부임한 박내영 사무처장과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94회 전국체전 참가 준비 및 경기력 향상과 전남체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감공무원으로써 모든 역량을 발휘해 도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체육인들과 상생하면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

호남일보

나주 영산강 전국카누대회

내달 14일 개최 일정 확정

나주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이달 중순에 개최 예정이었던 영산강 전국 카누대회가 내달 14일로 개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나주시는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순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바람의 방향과 폭조, 폭염 등을 고려해 대회 일정을 내달 14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남도나주시가 주최하고 세한대학교 SRL해양레저 특성화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초중

고와 대학, 일반부 등으로 나뉘어 14일 하루 동안 열린다. 주종목은 대프팅과 카야, 윈드서핑, 덩기요트 등 4개 종목이며 제트스키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회진행을 위해 5월말까지 설치 예정이었던 영산강 수상계류장은 암반굴착 관계로 대회전까지는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나주가 내륙 수상레저 스포츠의 명소로 반등올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